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8. 1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전력사용 줄여라” 급전지시 폐지

(‘18.1.29. 머니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‘급전지시’(수요감축 요청)을 폐지하고,
 - 정부가 수요감축량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‘자율시장형 수요자원 거래 제도’가 도입됨
- ☐ 개선안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여름 시행 될 전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정부가 현행 수요자원(DR) 시장의 수요감축 요청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- ☐ 또한 정부가 수요감축량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 하는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
 - 동 기사에서 언급된 ‘자율시장형 수요자원 거래제도’는 지난 1.18일 개최된 수요자원 업계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DR 제도 개선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

- 수요자원시장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을 뿐임
- ☐ 동 기사의 ‘자율시장형 수요자원 거래방식’은 보상 수준과 방식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
 - 정부가 동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,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방안을 검토한 바도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
김양지 서기관(044-203-5262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